

本能으로서의 土地所有欲求

홍 성 열*

I. 序論	3. 國家領域
II. 領域研究 事例	4. 領域所有와 所有者의 特性
1. 個人領域	III. 結論
2. 集團領域	

I. 序論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노력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억제 가운데서도 투기의 가능성은 언제나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투기의 이유를 단순히 부동산을 재화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토지가 좁은 국가에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소유욕구를 나타내는 것은 재화이상의 어떤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토지로 해서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곤혹스런 발표가 나오게 된 사연을 통해서도 토지에 대한 높은 매력을 가늠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토지가 재화의 의미를 넘어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계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토지의 높은 구매의욕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 같다.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자아욕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Maslow(1968)의 욕구 5단계설로 설명을 시도한다면, 토지를 소유하려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타인과 사귀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는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구와 모두 관계가 있다. 그래서 토지가 생리적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소속감의 욕구도 제공

*본학회 정회원,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욕구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의 소유가 생득적일 수도 있고 또한 환경적일 수도 있다. 즉, 생리적 욕구에서 설명한다면 분명히 생득적인 욕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이나 자아실현욕구에서 본다면 생리적 욕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학습된 행동이라는 주장도 확실하지 않다.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나 아니면 환경적이나 하는 주제는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최근까지 환경론자들의 견해가 강세를 보여 왔다(Taylor, 1983). 인간의 행동이 학습된다는 주장은 심리학자인 Watson(1924)의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또한 자극에 의해서 학습된 반응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이 학습된 것이라는 주장은 Skinner(1974)에 의해서 더 구체화된다. 그에 의하면 행동이란 부적 혹은 정적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좀 더 최근의 학자로서 Travis와 Wade(1984)는 남녀의 역할이 어느 지역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고 각각 다른 경향을 갖는다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은 생득적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나 혹은 환경적이나 하는 논쟁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경적 그리고 생리적인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으려 한다 : 즉, 유전적 요인이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 ; 문화는 유전적 소인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문화는 유전적 소인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라는 주장을 고집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적 주장을 한 학자들은 주로 과거 과학 초기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생리나 유전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있는 주장을 내세울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협소한 지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적 주장에 비해서 열세에 놓여 있었다(Taylor, 1983). 그러나 현재는 매 2년마다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배가하고 있어서 만족스런 자료와 함께 인간의 행동이 학습된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Fuller(1978)에 따르면, 동물의 행동은 대체로 유전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물에게는 구애, 교배, 보호, 공격성과 같은 많은 형태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된다는 증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이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인간의 행동이 유전된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유아의 생득적인 행동이다. 갓 태어난 유아는 젖꼭지를 규칙적으로 찾게 되며 젖꼭지가 입에 닿을 때, 그러한 행동은 그치게 되며 빠는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다른 보편적인 행동은 파악반사 행동이다. 유아들은 손바닥에 어떤 사물이 닿게 되면 작은 손으로 쥐게 되는데, 그 때에 항상 가운데 손가락으로 쥐게 된다. 주위환경의 영향을 축소한 연구 ; 즉, 장님으로 태어난 유아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지만 성내고,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얼굴의 표정이 정상인의 행동과 같았다(Thompson, 1945). 이러한 예들은 인간이 유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용이하게 만든다.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나 아니면 환경적이나 하는 주제는 유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표정이

나 몸짓을 폭넓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에서 유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학습의 결과로 혹은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복잡한 행동이 유전자와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전적 요인만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한 행동은 복잡한 행동이 유전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행동이 유전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복잡한 행동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도 타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예를 보면, 아직도 석기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 부족민들에게 미국인의 행복, 놀라움, 공포, 화를 내는 행동을 구분하게 했을 때, 80%이상이 미국인의 정서를 해석할 수 있었다(Elkman과 Friesen, 1971). 또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표정은 물론 몸짓에서 보편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는 순간적으로 눈썹을 깜빡이는 것, 미소와 함께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Eibl-Eibesfeldt, 1975). 이와 같이 유전이나 혹은 환경이나를 주장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패턴을 비교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동이 복잡할수록 문화와 유전을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행동을 대상으로 유전이다 혹은 환경이다를 논하기보다는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된 행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Murdok(1945)은 모든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68가지 공통된 행동특성을 지적하였다: 화장, 장례, 근친상간 금지, 결혼, 개인 이름, 지위의 우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전적 보편성을 갖는 이유는 “유전적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특성은 진화하는 동안에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한 유전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래되고 그리고 확산되어서 후손들이 이러한 특질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Wilson, 1978, p.33). 그러나 500만년전 열매를 따고 들로 사냥을 하던 행동패턴이 현대의 복잡한 생활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Wilson(1978)은 그의 저서 사회 생리학(sociobiology)에서 “인간의 유전자는 하나의 특성을 지정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성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지닌다(p.57)”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동특성을 그대로 전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러한 특질을 근거로 해서 특정 행동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Wilson이 주장하는 생물 사회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라면, 토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연히 유전적일 수 있다. 수백 만년 전부터 인간은 열매를 따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해야만 했다. 영역의 미확보는 바로 굶주림이며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연결된다는 진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역의 확보 과정에서 혹은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며 얻은 특이한 정서가 후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가 웅고하듯이, 우리의 강한 경험은 그와 유사한 경험들과 같이 뭉쳐져서 중요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Jung, 1963). 이러한 특성 중에는 현대와는 달리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영역은 생의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한 영역에

서 경험한 강한 정서가 특이한 행동, 즉 토지를 소유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역,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욕구가 생득적이라는 주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과거 농업을 주로 하던 농경사회나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도 언제나 영역 내지는 토지소유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모든 생물이 흙에서 나서 자라나고 흙을 터전으로 생활한다. 그러므로 인간 역시 그러한 땅을 딛고 살며 또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있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땅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간단히 학습된 행동이다, 재화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려 한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자아를 실현하며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은 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인간의 토지에 대한 욕심은 학습 이전에 본능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욕구가 본능이어서 강력한 억제는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일시적이거나 토지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나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정책 입안자는 특기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영역을 소유할 때 심리적 안정을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확고한 영역을 소유할 때, 질서는 물론 집단의 안정을 갖게 된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개체성을 만들 수 있어야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Laing, 1960; Maslow, 1968). Laing과 Maslow가 개체의 의미에서 영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정의(self-definition)인 개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II. 領域研究 事例

영역의 의미는 1) 땅위에서든, 공중에서든, 혹은 바다에서든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2) 영역은 어떤 종류의 소유를 의미한다 3) 영역은 소유자에 의해서 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영역은 소유자에 의해서 공격과 방어를 유도하게 된다(홍성열 역, 1991, p.332). 영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역은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의 연구가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예를 들면서, 영역의 소유가 학습되었다기 보다는 생득적이라는 주장을 시작한다.

1. 個人領域

Altman(1975)에 따르면, 우리들은 자신의 영역을 일차적 영역, 이차적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으로 구분하며 생활하고 또한 이렇게 구분하는 통제력을 가질 때,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일차적 영역은 소유되고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된다. 그리고 영역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이고, 일상생활의 중심이 된다. 이차적 영역은 개인이 어떤 통제권은 갖지만, 일차적 영역이 갖는 소유권의 정도보다는 낮으며, 영역에 대한 소유권은 일시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은 임시적 소유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소유권을 갖는다. Altman이 주장하는 것같이 개인이나 집단은 영역의 한계를 정했을 때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영역이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집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영역, 즉 일차적 영역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만이 소유하는 영역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나타나서 개인간에 상당한 갈등을 빚게 된다(Gunderson, 1973). Altman이 주장한 것같이 어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한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 옮겨 다니면서까지도 자신이 위치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고집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령에 구분없이 대인관계에서 인적 공간(personal space)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공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거리에 근거해서 구분을 한다(Hall, 1966): 친근(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 18인치), 개인적(18인치에서 4피트), 사회적(4피트에서 12피트), 그리고 공적(12피트 혹은 그 이상). 이러한 공간이 유지되었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잡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져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공격적이 된다. 동물의 경우도 인간과 같이 친근지대나 인적지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영역에 비해서 적정수가 넘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늘어나고 그 이상은 불어나지 않았다. Calhoun(1962)에 따르면, 1/4에이커에 충분한 음식과 물을 주었지만 150마리 이상이 늘지 않았으며 10 내지 12마리씩 하위집단을 만들고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격과 파괴행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구밀도와 도시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도시의 범죄율이 높았음을 보고한다(Galle, Gove, & McPherson, 1972; Galle & Gove, 1979).

Howard에 따르면, 떠돌이 새들도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같이 정확하게 매년 동일한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다(Howard, 1920). Howard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영역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늑대, 사자, 거위, 물개, 해구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동물들의 행동에서 지역적인 고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Forsyth, 1983). 물론 이러한 영역확보 내지는 보유의 행동이 본능적이라는 것이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영역의 한계를 정하려는 개인욕구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조사되었다. Vinsel, Brown, Altman, 그리고 Foss(1980)는 기숙사 학생들의 침대 벽에 붙여 놓은 그림과 사진이 방문객에

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지만, 붙여 놓은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보고한다. 기숙사 학생들은 동료와 같은 방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Hayton(1973)과 Altmann (1977)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침대, 변기,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있는 사방 12피트짜리 방에서 2사람이 10일간을 밖에 출입을 못한 채 같이 생활하게 했을 때, 재빨리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행동: 즉, 어떤 의자나 가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영역을 정하려 했으며, 이러한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크게 넓히려는 경향을 보였다. 해저에서 오랫동안 항해하는 사람들(Weybrew, 1963), 바다밑 실험실에서 생활하는 연구자들(Helmreich, 1974), 우주선에 탑승한 항공사(Fraser, 1966), 그리고 군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Weiler & Castle, 1972)이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없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에 갖은 마찰을 빚거나 혹은 무기력, 사기 저하 내지는 아주 지루함을 가졌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인간은 자신만이 소유하는 영역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개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타인의 접촉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대인관계로부터 자신을 멀리 격리시키고 싶을 때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Forsyth, 1983)하고 있다. 즉, 영역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마음의 안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함께 갖는다.

2. 集團領域

영역을 보유하려는 행동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행동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집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원숭이들의 연구를 보면, 남아메리카의 Howler원숭이들은 20마리씩 무리를 지어 살며, 침입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뜻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아 다닌다(Capenter, 1958). 침입자가 있을 경우, 이들이 물러설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러한 동물의 영역보유 행동은 사자, 호랑이, 물소 등 다양한 동물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집단행동에서도 영역확보에 대한 행동을 찾아 볼 수 있다. 심심치 않게 갯들의 영역 갈등을 우리들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1995년 10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 전국의 폭력조직이 288개이며, 서울이 145개, 1436명; 광주 31개, 1641명; 부산 77개, 609명; 인천 23개, 489 그리고 대구 12개, 512명의 갯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지역을 방어함을 물론 다른 영역의 침범은 폭력적인 싸움을 하게 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갯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심지역의 이름이나 거리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 또한 지역에 낙서를 하므로 영역을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는 자신들의 중심지로 들어 갈수록 더 심화된다(Ley & Cybriwsky, 1974).

감옥(Glaser, 1964), 해군함정(Heffron, 1973; Ross, 1979), 그리고 기숙사(Baum & Valins,

1977) 등의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정 받았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더 확실하게 밝힌 연구는 Baum, Valins와 그들의 동료들(1979)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복도형 기숙사와 각방이 분리된 칸막이형 기숙사의 생활결과를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두 종류의 기숙사에 할당하였다. 복도형 기숙사는 각 층마다 17개의 방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방사이로 긴 복도가 통해 있었으며 화장실과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설계되었다. 한편 칸막이형 기숙사는 2,3개의 방에 화장실과 휴게실이 따로 있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복도형 학생들은 생활이 복잡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불평한 반면, 칸막이형 학생들은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공부도 효율적으로 잘했고, 그리고 기숙사 밖의 다른 동료들과도 친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복도형 기숙사생들이 불평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또 다른 현장연구의 예를 들면, 해변에서 여러 집단에게 외부와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였을 때, 이들 영역들은 사람의 수가 증가할수록 영역 또한 넓어졌으며, 그리고 해변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영역은 더 커졌다는 결과를 제시한다(Edney & Jordan-Edney, 1974).

3. 國家領域

전세계 인구가 군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일 비용은 20억불에 해당하며 또한 지구상의 각 사람이 하루에 100불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전세계를 12번이나 파괴하고도 남는다(Mayer, 1987). 각국이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사실상 엄청나다.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집합적인 행동은 굶주리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못사는 나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수다한 국가들이 군비에 상당한 량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표 1 참조). 불란서 같은 강대국들 역시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타국의 비난을 마다하고, 그리고 외교 단절이라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행하는 이러한 집합적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개인이나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영역확보노력은 생득적 집합행동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비 지출은 생득적 욕구인 섭취욕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취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영역방어를 개인의 토지소유욕구와 비교하는 것은 개인욕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개인의 연장이 사회고, 국가다. 따라서 국가의 영토방위는 개인욕구의 집합이기 때문에 영토방위 또한 토지소유욕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의 영토는 오랜 옛날부터 언제나 확실한 선에 의해서 그어졌으며, 힘이 강할 때는 언제든지 영토의 확장을 시도했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1〉 아시아 국가별 국방비

국	가	비	용
북	한	\$ 5.3 bil	25.5% of GNP
남	한	\$ 13.5 bil	3.9% of GDP
중	국	\$ 28.4 bil	5.4% of GDP
대	만	\$ 11.4 bil	4.9% of GNP
일	본	\$ 45.8 bil	1.2% of GDP
베	트 남	\$ 860 mil	4.5% of GDP
태	국	\$ 3.4 bil	2.7% of GDP
말	레 시 아	\$ 2.4 bil	3.6% of GDP
싱	가 폴	\$ 3.1 bil	5.2% of GDP
인	도 네 시 아	\$ 2.3 bil	1.6% of GDP
라	오 스	\$ 114 mil	8.1% of GDP
캄	보 디 아	\$ 61 mil	
버	마	\$ 425 mil	10.8% of GDP
필	리 핀	\$ 1.3 mil	2.3% of GDP

Newsweek, October 16, 1995

4. 領域所有와 所有者의 特性

영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자신의 영역소유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나,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연구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일단의 대화집단이 차지한 영역이 비록 뚜렷한 경계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집단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Knowles, 1973)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Cheyne & Efran, 1973), 혹은 집단이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단순한 집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Knowles & Basstt, 1976), 그 집단을 통과하는 율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로써, 우리들은 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어느 의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의 차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의에서 자리는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 새로이 형성될 때, 차지하는 자리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역은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를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늘 규칙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취미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영역의 확보를 갖게 하는 반면에 다른 집단의 영역을 존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어떤 영역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집단의 사람들은 곧 알게 되고 또한 그러한

영역 때문에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이 발생된다. 영역과 관련된 이러한 행동 특성은 사무실이나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집단 사람들의 행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회사의 사무실에 자신의 아들, 딸의 사진을 부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숙사에서 자신의 침대 옆에 각종 사진이나 포스터를 부치는 것은 영역의 소유는 물론이고 영역을 차지한 사람들의 지위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Hansen & Altman, 1976; Vinsel, Brown, Altman & Foss, 1980), 타인은 그러한 영역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지를 알게 된다. Hansen과 Vinsel 등의 연구에서,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은 주로 스키 포스터, 고등학교 때의 기념품을 부쳐 놓고 있었으나 학업을 계속한 학생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주제, 그림, 그리고 가족의 사진을 부쳐 놓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영역은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 우월성의 표시가 된다. 예로써, Sage수탉이 짝짓기를 할 때, 400-500마리씩 무리를 짓는다. 수탉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탉들보다 먼저 도착한다. 수탉들이 차지하는 장소 중에서 한 두개는 좋은 영역이 된다. 암탉들이 도착하면서 제일 좋은 장소를 차지한 수탉에게 모여든다.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수탉들은 암탉들에게 완전히 무시되며 짝짓기 또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영역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은 동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역 우월성에 대한 행동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대기업의 회장이 타는 엘리베이터, 회사 최고 간부들의 집행부는 대부분 맨 위층을 사용한다. 회사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더 좋은 골동품, 유화 등의 물품으로 장식되며, 그러한 사무실 또한 다른 하위계급자의 사무실보다 더 넓다. Durand(1977)은 큰 화학공장의 기획실, 대학 그리고 정부의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사무실 크기와 지위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의 넓이와 지위의 관계는 회사, .81; 정부관리, .79; 대학, .29의 상관관계 계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예, Esser, 1973; Sundstrom & Altman, 1974). 특히 Sundstrom과 Altman의 연구는 장기적인 연구기간을 통해서, 구치소에 감금된 소년들의 화장실, 휴게실, 그리고 TV를 시청하는 행동이 매일 그들의 방을 지나다니는 관찰자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된 결과, 힘이 센 소년은 어떤 특정 면적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힘이 약한 소년은 만족스럽지 못한 장소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영역과 우월성의 관계는 여러 측면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멋진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개인이 차지한 영역이 존재할 때, 집단 구성원간의 행동지침, 집단의 분위기,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사생활 유지의 기회가 증가된다(Forsyth, 1983)는 것을 보고한다.

III. 結 論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나 혹은 환경적인가 하는 논쟁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 어느 쪽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논쟁은 더 가열되고 끝이 없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환경과 유전을 합하여 상호작용이라는 조건하에서 논쟁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양쪽의 어느 한 쪽을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그러한 결론은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욕구가 유전적이나 혹은 환경적이나 하는 문제를 확실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결론을 갖는 것이 어느 한쪽의 진실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동물에 관한 연구에서 영역확보 행동이 학습이라기보다는 유전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보아 왔다. 한편 인간을 통한 영역의 연구에서 토지소유욕구가 학습적이라는 결론을 연구자들이 분명히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이 영역에서 먹이와 거처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같이 인간 역시 영역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을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영역소유 행동이 생득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은 Wilson의 사회생리학에 의해서 더 신뢰롭게 받아들여 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싶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학습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소유행동이 학습된 것이라면, 학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욕구가 마땅히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학습기회를 갖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도 영역을 주장하는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Hall, 1966), 영역소유행동이 간단히 학습행동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생득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어린이의 영역확보 행동을 토지소유욕구로 전환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영역확보행동이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토지에 대한 욕구로 바뀐다는 생각에는 무리가 없다.

동물의 행동이 완전히 유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이 Skinner 등의 학습 이론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Fuller(1978)가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한 결과, 동물의 행동은 대부분이 유전적이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할 이론 또한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동물이 먹이를 위하여 영역을 확보하는 행동을 유전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Wilson (1968)의 사회생리학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인간의 영역확보행동은 유전적이며 또한 오늘날의 토지소유 욕구는 추론에 의해서 유전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시대를 초월해서 강하게 존재했으며, 그러한 욕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토지소유욕구가 유전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욕구가 어디에서나 찾아질 수 있는 공통적인 욕구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토지가 그 중에 으뜸이라는 주장에는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토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며 그래서 정부가 시책으로 과열구매를 막기 위해서 억제력을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시책은 영구적인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억제가 일시적으로 약화될 경

우, 억제된 만큼 더 강한 힘이 역형성되는 사회현상을 보아 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욕구가 학습된 행동이 아니고 생득적이며, 이런 생득적인 욕구는 억제되는 만큼 더 강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투기를 잡는듯 하였으나 반면 정부의 토지구제 완화는 곧 바로 과열투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 호흡하고, 배설하고, 섭취하는 욕구 - 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본능으로 주장한 부동산소유욕구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이같은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부동산소유욕구가 본능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욕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의 토지나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그 욕구의 만족에 상당 부분을 소모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한 다른 욕구가 우선될 수 없다.

〈참고문헌〉

1. 홍성열, 역 「집단역학」 (Donelson R. Forsyth,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1983), 양서원, 1991.
2. Altman, I,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Montrey, CA. : Brooks/cole. 1975.
3. Barash, D., *The Whisperings Within*, New York: Haper & Row. 1979.
4. Baum, A., & Valins, S., *Architecture and Social Behavior : psychological studies of social density*, Hillsdale, N. J., Erlbaum.
5. Baum, A., Davis, G. E. & Valins, S., Generating behavior data for the densing. 1979. process. In J. R., Aiello & A. Baum (Eds.), *Residential crowding and desing*, N. Y. : Plenum.
6. Calhoun, J. B., "Population Density and Social Pathology", *Scientific American*, 206, 139-148. 1962.
7. Carpenter, C., R., "Territoriality: A review of concepts and problems." In A. Roe & G. G. Simpson (Eds.), *Behavior and 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8. Cheyne, J. A., & Efran, M. G., "The effect of spatial and interpersonal variables on the invasion of group controlled territories", *Sociometry*, 35, 477-487. 1972.
9. Durand, D. E., "Power as a function of office space and physiognomy: Two studies of influence", *Psychological Reports*, 40, 755-760. 1977.
10. Edney, J. J., & Jordan-Edney., "Territorial spacing on a beach", *Sociometry*, 37, 92-104. 1974.
11. Eibl-Eibesfeldt, I., *Ethology: The Biology of Behavior*, New York: Holt,Reinhart and Winston. 1975.
12. Eikman, P. & Friesen, W., "Constants across culture in the face and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tructure*, 17, 124, 1971.
13. Esser, A. H., "Cottage Fourteen: Dornonance and territoriality in a group of instutionalized boys", *Small Group Behavior*, 4, 131-147. 1973.
14. Fraser, T. M., "The effects of confinement as a factor in manned space flight.," *NASA conractor Report, NASA CR-511*, Washington, D.C.: NASA. 1966.
15. Fuller, J. S., *Genes, Brains and Behavior in Sociobiology and Human Nature*, San Francisco: Jossey-Bass. 1978.
16. Galle, O. R., & Gove, W. R., "Crowding and Behavior in Chicago, 1940-1970". In J.R. Aiello & A. Baum (Eds.), *Residential Crowding and Design*, N. Y.:Plenum. 1979.
17. Galle, O. R., Gove, W. R., & McPerson. J. M., *Population density and pathology: What are the Relationships and Social Psychology*, 4, 14-20.
18. Glaser, D., *The Effectiveness of a Prison and Parole System*, Indianapolis: Bobbs-

Merrill, 1964.

19. Grunderson, E. K., "Individual behavior in confined or isolated groups", In J. E. Rasmussen (Ed.), *Man in Isolation and Confinement*, Chicago: Aldine, 1973.
20. Hall, E. T., *The Hidden Dimenson*. New York: Double-Day, 1966.
21. Hansen, W. B., & Altman, I., "Decorating personal places: A descriptive analysis", *Environmentalk and Behavior*, 8, 491-504, 1976.
22. Haythom, W. W., "The Mini World of Isolation: Laborarory Studies". In J. E. Rasmussen (Ed.), *Man in Isolation and Confinment*, Chicago: Aldine, 1973.
23. Heffron, M. H., "The naval ship as a urban design problem", *Naval Engineers Journal*, 12, 49-64 1958.
24. Helmreich, R. L., "Evaluation of environments: Behavioral observation in anundersea habitat", In J. Lang, C. Burnette, W. Moleski, & D. Vachon (Eds.).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Strodsburg, Penn.: Dowden, Hutchinson, & Ross, 1974.
25. Hooton, E. A., *The American Criminal: An anthropological study*, Westprt, Conn.: Greenwood Press, 1939.
26. Howard, H. E., *Territory and Bird Life*, London: John Murry, 1920.
27. Jung, C. G., *Memories, Dreama, Reflections*. N.Y.: Pantheon Books, and London: William Collins Sons, Ltd, 1963.
28. Knowles, E. S., "Boundaries around group interaction: The effect of group size and member status on boundary perme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27-331, 1973.
29. Knowles, E. S., & Bassett, R. L., "Groups and crowds as social entities: The effects of activity, size and member similarity on non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837-845, 1976.
30. Laing, R. D., *The Divided Self*, London: Tavistock, 1960.
31. Ley, D., & Cybriwsky, R., "The spatial ecology of stripped cars", *Environment and Behavior*, 6, 53-68, 1974.
32. Maccoby, E. E. & Jacklin, C. N.,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33. Maslow, A.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68.
34. Money, J. & Ehrhardt, A. A., *Man and Woman, Boy and Girl: The different-iation and dimorphism of gnender identity from conception to maturity*.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2.
35. Murdock, G. P., *The Denominator of culture, in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35. Murdock, G. P., *The Denominator of culture, in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Linton, R.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5.
36. Myers, D. G., *Social Psychology* (2nd ed.), N.Y.: McGraw-Hill. 1987.
37. Sheldon, W., *Varieties of Delinquent Youth*, N.Y.: Harper and Brothers. 1949.
38. Skinner, B. F. *About Behaviorism*, N. Y.: Alfred A. Knopf. 1974.
39. Sunderstrom, E., & Altman, I., "The field study of dominance and territor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45-654. 1974.
40. Travis, C. & Wade, C., *The Longest War: Sex differences in perspective*, N.Y.: Harcourt Brace Janovich. 1984.
41. Taylor, L., *Born to Crim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3.
42. Thompson, J., "Development of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in blind and seeing children", *Archives of Psychology of New York*, 264. 1941.
43. Vinsel, A., Brown, B. B., Altman, I., & Foss, C., "Privacy, regulation, territorial displays an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04-1115. 1980.
44. Watson, J. B., *Behaviorism*, N. Y.: W.W. Newton & Co., Inc. 1924.
45. Weiler, D. J. & Castle, J. E., "The Need for an Open System Approach to Naval Ship Habitability Desig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 N.N.: November 1972.
46. Weybrew, B. b. "psychological problems of prolonged marine submergence". In J. N. Burns, R. Chambers, & E. Hendler (Eds.), *Unusual Environments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47. Wilson, E. D.,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London: Belknap Press 1975.
48. Wilson, E. O.,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1975.
49. _____, *On Human Na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